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(센터장 이기원)

배포일: 2023.7.24.(월)

유쾌한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, 요리를 이야기하다

-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(센터장 이기원)는 7월 25일(화) 서울대 미술관에서 ‘데니스 홍 초청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(이하 ‘토크콘서트’)’ 를 개최한다. 이번 행사는 서울대 BK21농생명공학교육연구단과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,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XO센터가 주관하며 로봇공학자인 데니스 홍 교수(UCLA 기계공학과)와 푸드테크 스타트업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로봇이 식품분야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전망할 예정이다.
- 푸드테크(FoodTech)는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창발 기술로, 이를 활용한 푸드테크산업은 식품의 생산, 유통,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, 바이오기술(BT) 등 첨단기술이 결합한 ‘차세대 먹거리 산업’ 이다. 최근 개인맞춤과 ESG라는 사회의 주요 이슈와 더불어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기도 하다.
- 이번 행사는 세계가 주목하는 UCLA의 로봇연구소 RoMeLa를 이끄는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가 전망하는 푸드테크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. 그는 평소 요리를 좋아하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식품산업에 적용되

는 푸드테크에 남다른 애정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치킨 튀기는 로봇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낸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와 확장현실(XR) 기술과 함께 자체 개발한 로봇 바리스타 등 식음료(F&B)분야 로봇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화의 정범준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관점에서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고 응용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토의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기원 센터장은 대한민국이 푸드테크 산업의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이 중심이 되어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글로벌 푸드테크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” 며 “오늘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창발가가 되어 글로벌 푸드테크 유니콘에 도전하기를 희망한다” 고 말했다.